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454-4871
goenkim@meritz.co.kr

기준금리 인상에 은행 예·적금 금리 최대 0.3%p 오른다…대출금리도 ‘꿈틀’

조선비즈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들의 예·적금 등 수신금리 다음주부터 줄줄이 오를 예정… 카카오뱅크도 예·적금 금리 인상하기로…

주담대 금리 인상도 시간문제… 다음 달에 새로 나가는 주담대부터 본격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져 2% 대 대출 사라질 것으로 전망… 신용대출도 금리인상 가능성

マイ데이터 대면영업 놓고… 은행-빅테크 또 기싸움

한국경제

은행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준 비대면 플랫폼 뿐만 아니라 은행 대면 영업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 고령층 소외현상 방지 및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효과 반면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위험 소지가 높고,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고객 정보 활용 가능성에 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길' 열리나… DLF 징계 취소 '승소'

이코노미스트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DLF 손실 사태 불복 행정소송 1심 승소… 지주회장 연임 등 금융권 취업 제한 벗어날 수 있을 것… 타 금융사 CEO 제재에도 영향 가능성 소송의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관련 내부규정 험결 여부…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 적용해 의무 해석과 적용 그르친 점 있다고 판단

금융사 종합검사 더 못 미뤄… 코로나 상황 속 '속전속결'

아시아경제

금감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된 종합검사를 속전속결로 진행 중… 더 이상의 일정 연기는 금융당국과 대상 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 현장검사 규모나 일정을 대폭 축소… 코로나 상황 뿐만 아니라 정은보 신임 원장 취임 이후 달라진 감독당국 기류도 영향

푸르덴셜·메트라이프생명 경영유의 제재… '외화보험' 말썽

보험매일

푸르덴셜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제재… 외화보험 중심으로 모집인 교육자료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 외화보험 모집인 교육자료 14건에서 환차익과 수익성 강조, 보험상품 절판 강조 등 소비자 피해와 오인 유발 가능 내용 발견

반려동물 등록 232만 마리… 펫보험 가입 고작 '1.5%'

아시아타임즈

정부와 지자체에 등록된 반려동물 232마리에도 불구하고 펫보험 가입건수는 33,621건(가입률 1.5%)에 불과 보험가입 저조는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진료항목과 진료비로 보장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 보험사들 또한 판매 실적 미미

커지는 빚투 부담…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인상 고심

뉴데일리

증권사들, 신용공여 한도가 바닥나 증권담보대출 일시 중단 및 금리인상 고심 중… 신용거래융자 잔고 25조원 넘김 또한 금리인상 명분으로 작용 가능 한은 기준금리 인상이 추가로 단행될 경우 시장 추세를 따라갈 수 밖에 없어… 다만 갑작스럽게 이자율을 올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

플랫폼 '대어' 잇따른 상장에 증권사들 치열한 눈치 싸움… "수조원 IPO 잡아라"

조선비즈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잇단 증시 입성 추진으로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눈치 싸움 치열… 상장주관 중복으로 맡을 수 없어 어느 곳을 선택해 입찰하는 것이 유리한지 파악 중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 놓고 고심 중… 카카오모빌리티는 NH투자증권, 한국증권, KB증권, 대신증권이 RFP 받아… 미래에셋과 삼성도 쏘카 대신 선택 가능성에 주목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체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